



지역 소식

새로 부름 받은 야마시타 장로가 전하는 간증

지난 201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 받은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가 북아시아 지역 회원들에게 간증을 전한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북아시아 지역에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쁘고 한국
성도들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봉사와 신앙, 간증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인
'엑스포 70'을 통해 1971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전시장을
방문해서 "Man's Search for Happiness
(행복을 찾는 자)"라는 특별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일년 동안
토론을 했고 1971년 7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남부 지역인 카고시마
출신의 타즈코 자매와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에게 여섯 명의
자녀, 즉 아들 셋, 딸 셋이 있고, 다섯



명의 손자손녀가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저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스포츠 역사 및
철학과 체육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주님과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점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속죄
없이,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할 당시, 한 가지 훌륭한 경험을
통해 위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는 매년
봄에 학교 학생들 전체에게 체육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어느 해에, 저는
50미터 달리기 시험을 감독했는데,
8명이 한 조가 되도록 학생들을 줄
세워서, 달리기를 시키고 시간을
 잰습니다.

하루는 큰 무리의 학생들의 시험이
끝난 후에, 적은 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와서 그의 친구가 마지막에 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즉시

어떤 상황인지 알아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시각장애인 학생이 마지막에 뛰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달리기 시험을 마친 후에, 그 학생이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들이 하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 친구의 손을 잡고 출발선 가운데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승선으로 가서 출발선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자신의 팔을 쪽 뺀고는 박수를 크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시각장애인 학생은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물론 그 시각장애인 학생이 빨리 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미터 달리기를 능숙하게 완주했고 친구가 활짝 편 팔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중요한 교훈 한가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에 도달하려면 우리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의 속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도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구에 오는 것을 포함하는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라멘은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베냐민 왕이 그 백성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 참으로 그가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히라멘서 5:9)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킵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합시다.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시다.

복음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구주이시자, 제 가족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이 살아있는 오늘날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야마시타 장로는?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는 아내인 타즈코 타쉬로와 결혼한 직후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20대 후반에 감독 부름을 받았다. 한 와드를 책임지는 감독은,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후쿠오카라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해야 하는 야마시타 장로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부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부름을 통해 선임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르는 법과 그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신앙과 간증도 강해졌다.

야마시타 장로는 1953년 9월에 키요시 야마시타와 사다에 야마시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야마시타 장로는 사이타마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츠쿠바 대학교에서 스포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체육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야마시타 장로는 여러 대학교에서 강사와 교수를 역임하고 과학, 지역 사회,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봉사했다.

야마시타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공항에서 회원들과 함께 한 돌튼 자매와 스티브스 자매. 왼쪽 편에 선 자매가 스티브스 자매이고, 오른 편이 돌튼 자매이다.

20 12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교회 본부 청녀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진 에이 스티브스 자매가 한국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대구와 광주, 그리고 서울 지역을 돌며 회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포커스 미팅, 역원 훈련 모임, 특별 영적 모임 등을 통해서 청녀와 초등학교 회원들은 물론이고 신권 지도자와 역원들, 그리고 부모들을 훈련하고 격려했다.

직접 이야기를 듣다: 포커스 미팅

돌튼 자매와 스티브스 자매는 각 지역을 돌면서 회원들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 돌튼 자매는 청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티브스 자매는 초등학교 역원으로 봉사하는 자매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간증을 들었다.

대구에서 돌튼 자매와 만남을 가진 한 청녀는 자신의 외모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다고 말하며,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털어놓았다. 친구의 고백을 들은 다른 청녀들은 물론이고 돌튼 자매도 눈시울을 붉혔다. 청녀들은 처음 만난 돌튼 자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듯 울고 웃으며 자신들의 간증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등포 와드의 작은 공과 교실에 모인 청녀들은 자기소개가 끝나기도 전부터 돌튼 자매와 스스로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녀들은 또래들이 흔히 가질 법한 고민에서부터 교회 회원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신권 지도자와 청녀 역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까지 마음에 담아 둔 말을 돌튼 자매를 통해 쏟아냈다. 돌튼 자매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돌튼 자매와 청녀들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파란 눈의 할머니와 검은 머리의 어린 청녀들은 그렇게 깊은 유대를 맺었다. 그 유대는 노년의 모임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모임에 참석한 청녀들의 집중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스티브스 자매 또한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 대상은 초등학교 역원들이었다.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은 할 이야기가 많았다. 매주 어린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스티브스

자매는 때로는 적절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참석한 신권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면서 초등학교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같은 부름을 가진 자매들이 서로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진심으로 권고하다: 역원 훈련 모임

돌튼 자매와 스티븐스 자매는 24일과 25일, 그리고 26일에 각각 대구와 광주, 서울에서 역원 훈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청녀와 초등학교 회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이끄는 역원들, 신권 지도자 및 부모들이 초대받았다. 이 모임에서 두 사람은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일의 중요성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 훈련했다. 돌튼 자매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싶은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회원들에게 물은 후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자녀를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간증이 맴돌아야 합니다.” 또한

스티븐스 자매는 초등학교 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을 느끼고 인식하고,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 잘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상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돌튼 자매와 스티븐스 자매는 자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가족 경전 읽기 등을 강조했고 특히 돌튼 자매는 모든 청녀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을 당부했다.

두 사람은 참된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훈련했다. 스티븐스 자매는 역원들과 신권 지도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시다.”라고 말하고는 뒤이어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돌튼 자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이 먼저 준비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 강조했다.

두 사람은 회원들을 향해 감사와 격려, 그리고 당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말한 돌튼 자매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활용하여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은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스티븐스 자매도 “여러분의 지도력이 어린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랑을 전하다: 특별 영적 모임

특별 영적 모임은 대구와 광주, 그리고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와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대구와 광주는 돌튼 자매와 스티븐스 자매가 함께 참석하는 형태로, 서울에서는 돌튼 자매가



영등포 와드에, 스티븐스 자매가 신당 와드에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난 모임들이 훈련을 목적으로 했다면 특별 영적 모임은 사랑과 감사의 말, 그리고 깊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돌튼 자매는 집을 떠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을 나누 회원들과 헤어져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힘들다며 짧은 만남 뒤 찾아온 이별을 아쉬워했다. 돌튼 자매는 청소년들을 향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일 5분씩 묵문경을 읽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가지고 표준대로 생활하고 항상 웃으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자매는 몇 해 전 밤길에 막차를 놓쳐서 헤매고 있던 한 청남을 자신의 차에 태웠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신의 인도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돌튼 자매와 스티븐스 자매와 함께 다니며 모임을 감리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링우드 회장 또한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성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5월 28일에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돌튼 자매와 스티븐스 자매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 성도에 대한 사랑, 특히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돌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주신 사랑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만날 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홍성 지방부 홍성 지부 고요와 평안이 깃든 곳

고요와 평안이 깃든 홍성은 봄날의 게으른 햇살처럼 따뜻하고 안온한 분위기를 풍긴다. 홍성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88년 8월 28일이다. 당시 천안 지방부가 조직되면서 천안, 온양, 대천과 함께 홍성 지부도 설립되었다. 1988년은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였고 홍성 지부가 조직된 8월은 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기였기에 전국이 그 열기로 뜨거웠다. 홍성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홍성 지부 설립은 여름 태양처럼 넘실거리던 올림픽의 열기 그 한 가운데에서 요란한 현수막 하나 없이 고요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24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홍성 지부는 고요와 평안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현재 홍성 지부는 최영민 지부 회장 가족을 비롯하여 다섯 가족이 참석하고 있다. 약 20명의 회원이다.

젊은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지역적인 특성 상 고령의 회원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김용원 형제와 이순희 자매 부부는 홍성 지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김용원 형제가 올해로 여든이고 부인인 이순희 자매는 일흔여섯이다. 두 사람은 매 주 모임에 끝까지 참석한다. 김 형제와 이 자매는 20여 년 전 큰아들을 통해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줄곧 홍성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에 홍성 지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이순희 자매는 남편인 김용원 형제가 침례를 받고 2년 뒤에 개종했는데 신앙 생활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침례를 받고도 절에 다녔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 15년 동안 교회에 와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습관처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상호부조회 공과를 열심히 듣기 시작했는데 그 공과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이제는 신앙 생활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진리를 터득했기에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원 형제와 이순희 자매는 인생은 물론이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훌륭한 동반자이다. 한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 교회 가기를 망설일 때면 나머지 한 사람이 성찬이라도 들고 오자며 격려한다. 고령의 몸을 이끌고 안식일 아침마다 교회를 찾는 두 사람의 몸짓은 고요하고 평온한, 그리고 느낌의 미학이 숨어 있는 홍성 지부의 분위기와 닮아 있다. 홍성 지부



회원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재촉하지도 않는다. 어느 다른 지역의 와드나 지부처럼 흥겹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감돌지도 않는다. 대신에 홍성 지부에는 사려 깊은 배려와 진심 어린 사랑이 깃들어 있다. 매 주 안식일마다 만나기에도 벽찬 고령의 회원들은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살가운 말 한 마디보다 꼭 부여잡는 주름진 손으로, 큰 소리로 인사하기보다 상대의 얼굴을 보고 슬쩍 짓는 미소로 홍성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홍성 지부 회장으로 12년째 봉사하고 있는 최영민 회장은 선교 사업이 끝난 후 고향인 홍성으로 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부를 이끌어가면서 느낀 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회원들간의 우정과 사랑은 참 돈독하고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항상 모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신권을 가진 형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찬 축복을 할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점들이 저희들이 가진 어려움입니다.”

비록 현재의 홍성은 작고 미약하지만 최영민 회장이 그리는 미래는 결코 작지 않다. 홍성은 현재 변화 중이다. 곧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고 도청 이전 계획도 발표되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홍성은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변화한 곳이 될 것이다. 최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기쁨을 선언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홍성이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시온의 스테이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미숙 자매는 초대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회원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지만 초대회는 홍성 지부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조직이다.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 월 금식 주마다 연단에 올라가서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초대회 어린이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4년 간 한결같았던 홍성. 최영민 회장의 소망처럼 홍성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고 홍성 지부에도 회원이 넘쳐나더라도 홍성만의 고요하고 평안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성찬식에 참석하고 눈이 어두워 경전을 읽기가 힘들면서도 말씀 듣는 게 좋아 끝까지 건디는 회원들이 있는 한, 홍성은 주님의 안온한 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순희 자매와 김용원 형제가 들려주는 소박한 간증이 있는 한, 홍성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저희들이 늙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경전도 잘 못보고 그냥 여기 와서 성찬을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따라 나가려 하죠. 또 아무리 옆에서 방해가 와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제가 침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틀림없이

그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어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부터 현재까지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늦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건강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지켜나감으로써 건강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산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

〈취재: 정유진 자매〉





어머니와 동생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를 알게 된 것은 8년 전이다. 어느 날 여동생이 무료로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다며 가지고 온 전단에 교회 이름이 찍혀 있었다. 여동생과 나,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로 찾아갔다. 나는 선교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교회가 참 진실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반면에 동생과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더니 침례까지 받았다. 두 사람은 몇 년을 이어오면서 충실하게 교회에 다녔고,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평소 실증을 잘 내고 자유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즐기던 동생이 착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도 신기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면 절대 열중하지 않는 어머니가 밤 늦도록 정전 공부를 하는 모습도 신선했다. 두 사람의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것이었고 비록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교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품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을 때, 지부 회원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 오기 시작했다.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지부 회장님과 지부의 자매님들도 꾸준히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분들의 권유,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생각까지 더해져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후 회원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2011년 10월에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었다. 그 옛날의 동생과 어머니처럼 내 인생도 바뀌게 된 것이다. 나는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한다. 그분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행동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내가 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동생과 어머니의 모범, 그리고 지부 회원들의 사랑과 기도에도 감사드린다. ■
 <김윤성 자매, 경주 지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2명/해외 4명



김소라 자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부산 선교부



신영호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선교부



김지교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신봉민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하와이 성전 방문자
 센터



박성오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선교부



이광호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부산 선교부



박성현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이순지 자매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서울 선교부



박호형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부산 선교부



이정환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선교부



설천우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케네워 선교부



전준경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시드니 선교부



송은혜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대전 선교부



조광진 장로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대전 선교부



송지혜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조규원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